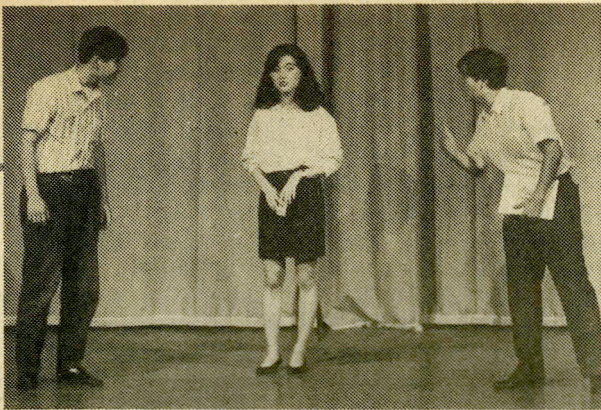


91.
9,18



연세대 의대 여학생회가 축제기간중 공연한 연극 <로라가 설 땅은>은 의대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최초로 극화해 무대에 올린 것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의료현장 남녀차별 고발

연세의대 여학생회 축제행사 '바로...'

"남학생들이 산부인과 환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기특하게 생각하면서도 여학생들이 비뇨기과에 새로 들어온 환자에게 실습 때 관심을 가지면 선생님들도 '여자애가 뭐 그런 걸 보려 하느냐'고 구박을 하기 일쑤지요..."

공연, 2부 '함께 생각하는 여의사의 현실' 주제발표회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지난 8월 첫 발족된 연세대 의대 여학생회가 첫 공개행사로 마련한 것으로 2백여명의 의대생이 참석했다.

회장 강윤주(의대 본과2)씨는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

연극·주제발표·토론등 2백여명 열기

지난주 연세대 의대 축제기간(9~14일)중 의대 여학생회가 연 '바로 당신의 이야기' 행사에서는 '의과대학 수업시간에서부터 의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의료계 현장에서의 각종 남녀차별'에 대한 의대 여학생들의 기발한 문제제기가 보는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1부 <로라가 설 땅은> 연극

살아남으려 했던 선배 여의사들의 삶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의료계내 성차별현실을 풀어갈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짜 의사처럼 슬라이드를 통해 의료계내 성차별현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이들의 모습은 마냥 진지했다.